

##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와드리시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

리 순 영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끝없는 헌신성과 지성을 다하여 도우심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머니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만경대에 계실 때부터 아버님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와드렸으며 독립운동자들의 시중을 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92권 233페이지)

일찌기 《지원》의 뜻을 지니시고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동지획득과 대중계몽사업, 반일력량의 단결과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사업을 힘있게 추진시키시면서 무산혁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시고 개척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벌려나가시는 혁명사업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성스러운 투쟁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시고 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삼으시였으며 그 어떤 어렵고 위험한 일도 스스로 맡아나서시고 일체의 갖은 책동으로부터 선생님의 신변을 보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시였다.

녀사께서는 혁명가의 안해로서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혁명동지로서 김형직선생님과 함께 조선혁명의 간고한 새벽길을 헤치시며 선생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도우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무엇보다먼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동지들을 언제나 따뜻이 맞아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성심성의껏 돌봐주시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시고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선생님과 함께 혁명투쟁을 해나가시는 동지들을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외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려 만경대로 찾아왔으며 때로는 선생님께서 그들을 부르기도 하시였다.

그들은 일체의 감시를 피하여 한밤중에 왔다가 새벽녘에 떠나곤 하였다.

녀사께서는 진종일 발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시여 저녁에 동자를 하신 다음 물레질이나 무명날이를 하시면 몸은 가늠할수 없이 피곤하시였지만 깊은 밤중에 선생님의 동지들이 찾아오면 밥을 지어주시였고 그들의 어지러워진 옷과 신발을 깨끗이 빨아 손질해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조직하신 후 평양, 강동일대를 활동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조선국민회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던 시기 봉화산밑

의 자그마한 집에는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러 찾아오는 조선국민회회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의 걸음이 그칠새 없었다.

평안남도안에서는 물론 의주와 창성, 강계와 중강진에서도 오고 은불과 재령, 서울과 부산, 목포에서도 왔으며 더 멀리 중국의 여러 지방에서까지 왔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남다른 관찰력과 판단으로 선생님의 동지들을 언제나 인차 알아보시였으며 그들을 따듯이 맞아들여 선생님께 안내해드리곤 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도와드리시기 위하여 온 마을이 깊이 잠든 시각에도 잠들지 못하시고 보리쌀을 안치신 후 동지들의 감발들을 깨끗이 빨아 가마목과 아궁앞에 넣어놓으시였다.

그 진정을 알게 된 한 지방조직성원이 죄송함을 금치 못하며 강반석녀사께 인사의 말씀을 올리려고 하자 녀사께서는 그의 말을 막으시고 고향집 어머님이나 누님들이 한일이면 그런 인사를 하겠느냐고 하시며 웃으시였다.

지방조직성원들은 녀사께서 밤새워 빨아 말리워주신 깨끗한 신발에 감발을 하고 떠나면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라면 불길천리라도 헤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림강에 오신 이듬해 봄 어느날 녀사께서는 한 녀성과 함께 무장부대에서 보내온 많은 빨래감들을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식사전에 국내에서 한 손님이 통신을 가지고 선생님을 찾아온적이 있었다. 그때 손님을 반갑게 맞아들이신 녀사께서는 자신께서 드시려던 아침밥을 손님에게 대접하시였다.

이런 일을 자주 목격하던 녀성이 이날 아침따라 멀건 숯농물만 마시고 빨래터에 나가시는 녀사의 모습이 여느때없이 수척해지신것만 같아 자기도 모르게 그 손님에 대한 푸념을 하자 녀사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야 한두끼 굶은들 어떤가고, 조국해방을 위해 천신만고 무릅쓰고 피흘리며 싸우는분들이 잘 자셔야 한대시며 그 녀성을 타이르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굶으신것보다 오히려 손님에게 조밥밖에 대접하지 못한것이 더 가슴아프다고 말씀하시였다.

혁명가들을 위해 남모르게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시면서도 오히려 그 지성이 모자라는것 같아 가슴아파하시는 녀사의 말씀에 그 녀성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다음으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을 위한 투쟁시기 무장대들의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희생적으로 도우시였다.

력사적인 관전회의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을 전환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새로운 무장대오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시는 한편 이미 조직되어 활동하고있는 독립군무장단들을 교양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도우시며 무장대들에 보낼 비밀련락과 무기를 구입하고 운반하는 사업을 자진하여 맡아 책임적으로 수행하시였다.

주체9(1920)년 초봄 어느날밤 김형직선생님께서 국내에서 찾아온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 새로운 적정과 관련하여 무장단의 활동을 변경시킬 급한 임무가 제기되었을 때 녀사께서는 통신련락임무를 자진하여 선뜻 맡아나서시였으며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놈들을 감쪽같이 속여넘기시고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이처럼 한몫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헤치시며 선생님께서 주시는 통신연락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하시였다.

녀사께서는 통신연락임무만이 아니라 무기와 탄약을 나르는 일도 자주 맡아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당시 압록강연안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시기 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성원들을 통해 수많은 무기와 탄약을 구해들이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시에 의하여 부엌널마루밑에 비밀지함을 묻어놓으시고 무기와 탄약들을 그속에 보관하시였다가 무장부대들에서 연락원이 오면 내여주곤 하시였다.

이 시기 김형직선생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압록강연안일대에서 무장활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지자 일제는 압록강기슭의 요소마다에 포대와 경비초소들을 늘이고 물샧틈 없는 경비진을 치는것과 함께 겨울에는 무장부대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압록강얼음을 까버리기까지 하면서 갖은 발악을 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무기와 탄약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일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일로 되였다.

녀사께서는 이 어려운 일도 자진하여 맡아나서시여 책임적으로 수행하시였다.

주체9(1920)년 봄 어느날 중강우편국에서 일하는 공작원으로부터 국내조직원들이 권총 2자루와 탄약 50발을 구해놓았다는 연락이 왔을 때 녀사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무사히 날라오시였다.

녀사께서는 사선을 헤쳐 가져오신 권총과 탄약을 부엌널마루밑에 감춰두시였다가 며칠후 또 손수 나물바구니속에 넣어가지고 투드거우에 있는 무장부대에 날라다주시였다.

주체12(1923)년 여름에도 녀사께서는 국내에서 연락원이 가지고온 권총 한자루와 탄알 30발을 비밀장소에 깊이 보관하시였다가 김형직선생님께서 그것을 가재수로 보내야겠다고 하시자 선뜻 맡아나서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그후에도 압록강의 거센 물결을 넘나드시고 투드거우의 험한 산길을 뚫으시며 많은 무기와 탄약을 나르시였다.

무기뿐만아니라 통신이나 물자를 나르는것도 더없이 위태로운 일이였지만 녀사께서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길을 걸으시였다.

이처럼 강반석녀사께서는 새로운 무장활동을 위한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높은 희생성과 헌신성을 가지고 도우심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 방향을 전환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다음으로 조선혁명의 새벽길을 헤쳐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신변안전과 비밀보장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였다.

조선혁명의 려명을 불러오기 위하여 간고한 새벽길을 헤쳐나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신변안전과 활동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나라의 독립을 하루빨리 앞당겨올수 있었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이 심화될수록 선생님을 찾아오는 조선국민회성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의 수가 더욱 많아졌으며 녀사의 집에서는 비밀모임들이 자주 진행되였다.

강반석녀사께서는 때없이 찾아오는 조선국민회성원들과 반일운동자들의 뒤바라지를 하시느라 바쁘신데다가 일제의 폭압과 밀정놈들의 감시로부터 선생님과 혁명가들의 신변을 지키시느라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시였다.

조선국민회의 출현으로 저들의 식민지통치체계의 붕괴를 선고받고 공포에 질린 일제는 조선국민회지하조직망을 알아내기 위하여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소동에 의하여 100여명의 조선국민회성원들이 체포되었다.

주제6(1917)년 가을 김형직선생님께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을 때 녀사께서는 선생님의 부탁대로 기와장밀에 숨겨있는 조직의 비밀문건을 꺼내시여 불태우시었다.

녀사께서 문건을 불태우신지 얼마 안되어 일제의 기마경찰놈들이 집을 수색하려고 달려들었지만 녀사의 단호한 항거에 당황해하다가 아무런 단서도 쥐지 못한채 책 몇권만을 걷어쥐고 달아나버렸다.

김형직선생님의 체포는 강반석녀사께 있어서 너무도 큰 타격이었지만 녀사께서는 강의한 의지로 그것을 이겨나가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선생님께서 체포되신것을 모르고 내동마을로 찾아오는 조선국민회원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여 끊어진 조직선을 이어주시고 조직관계를 수습해나가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신 이후에도 선생님의 신변안전과 활동의 비밀을 지키시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이 시기 일제는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날로 높아지고 무장활동이 격렬해지자 압록강연안과 만주일대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치면서 중국관헌들을 매수사촉하여 조선인반일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고있었다.

더우기 일제는 중강진에서부터 《요시찰인》으로 등록하고 감시해오던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을 내탐하기 위하여 《신사》로, 《장사군》으로 가장한 밀정놈들을 립강거리에 수많이 배치해놓고 선생님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이로 하여 김형직선생님의 걸음걸음은 간악한 일제의 총칼이 앞을 막아서고 밀정들의 감시와 미행이 뒤따르는 위험한 길이었다.

이런 조건에서 녀사께서는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는 선생님의 신변에 대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녀사께서는 집에 김형직선생님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으면 언제나 자신께서 먼저 밖에 나가시여 손님을 확인해보고야 선생님께서 계시는 방으로 안내해드리시였으며 자제분들에게도 늘 길가에서 아버님을 찾는 낯선 손님을 만나면 지름길로 집에 달려와서 먼저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었다.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집을 떠나시면 아드님을 부르시여 아버님의 뒤를 따르도록 하시였고 만일 아버님께서 뜻밖의 위험에 부닥치시게 되면 어디로 가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집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것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아버님을 따라가셨던 아드님께서 돌아오시면 녀사께서는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물으시고나서 선생님께서 무사히 가셨다는 아드님의 말씀을 들으시고서야 마음을 놓으시었다.

립강에 계실 때에는 적들의 간악한 흉계를 앞질러 짓부시고 선생님의 신변을 지키기 위한 신호체계를 세우시여 적들의 준동도 미리 앞질러 막아내시었다.

립강에 있는 선생님택에는 부엌문설주로부터 방안벽의 도배지밀을 통하여 의원실책상밑에까지 가는 노끈이 늘어져있었는데 그 노끈밑에는 작은 방울이 매달려있었다.

이것은 강반석녀사께서 적들의 간악한 흉계를 앞질러 짓부시고 선생님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 생각해내신 신호체계였다.

녀사께서는 마당가에서 망을 보시다가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끈으로 방안에 신호를 보내시었다.

어느날 김형직선생님께서 관전일대에서 활동하고있던 한 동지를 만나시여 의원실에서 긴요한 문제를 의논하고계시었는데 갑자기 중강경찰서의 순사놈이 마당안에 불시에 나타났을 때 부엌문설주짤에 있는 노끈으로 신호를 보내여 선생님의 안전을 보장하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도우시었을뿐아니라 신변을 지키시는 길에서는 자그마한 빈틈도 없으시었다.

주체10(1921)년 3월 김형직선생님께서 집을 떠나신지 얼마 안되던 어느날 이른아침 10여명의 경찰놈들이 불의에 순천의원에 달려들었을 때에도 녀사께서는 림기응변의 대담한 지략으로 놈들의 흉계를 짓부시고 위기를 한몸으로 막으시었다.

강반석녀사께서는 특히 주체13(1924)년말 김형직선생님께서 국내조직들과의 연락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몸소 포평으로 건너가시었다가 일제경찰에 체포되시었을 때 선생님을 구출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녀사께서는 선생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 먼저 김형권동지를 급히 포평으로 보내신 후 각지 혁명조직들에 선생님께서 체포되신 사실을 알리시었다.

녀사께서는 놈들의 기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몸소 압록강건너 포평으로 가시었다가 그날로 다시 팔도구에 돌아오시여 급히 독한술 한되병과 명태 한꺀미를 구해서 남사목재소의 황씨에게 주어 선생님을 구출하도록 하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무사히 탈출하시었을 때 녀사께서는 새 솜옷 한벌과 동상치료약품을 가지고 김형권동지와 함께 선생님께서 계시는 토로즈마울로 가시여 상처를 응급처치 해주시었다.

강반석녀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고 여러 대중단체를 내오고 그에 묶어세우며 새로운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무장단들을 통합하기 위한 김형직선생님의 활동은 성과적으로 보장되였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반석녀사께서 바라시던 념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다.